



"말씀과 성찬의 식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연중 제10주일

2024년 6월 9일 / 제641호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Office Hour: 화·목·금·주일 9AM - 1PM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TEL 925 - 871- 9746

미사	교중 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평일 미사	화·목·금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주일 /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5분
유아세례	사무실로 문의	

주일학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신심단체	레지오 마리아: 주일 / 평일미사 전후
	울드레야: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재속 프란치스코: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해설 손영채 제1독서 김용재 제2독서 홍순미 / 입당 518 봉헌 221, 513 성체 173, 151 파견 200  
Narrator Hawlan Ng 1<sup>st</sup> Reader Jun Vincencio 2<sup>nd</sup> Reader Elizabeth Hong

입당송 | 시편 27(26),1-2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라?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라? 나의 적 나의 원수, 그들은 비틀거리리라.

제1독서 | 창세 3,9-15

화답송 | 시편130(129),1-2,3-4와 6ㄴㄷ-7ㄱ,7ㄴㄷ-8(◎ 7ㄴㄷ)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파수꾼

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제2독서 | 2코린 4,13-5,1

복음환호송 | 요한12,31-32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나리라.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이리라. ◎

복음 | 마르 3,20-35

영성체송 | 시편 18(17),3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시옵니다.

[주일학교 및 영어미사 안내]

06월 09일	주일학교 NO	Fr. Jim
06월 16일	주일학교 NO	Fr. Bong
06월 23일	주일학교 NO	Fr. Peter
06월 30일	주일학교 NO	Fr. Gerald



“기도 부탁드립니다.”

Yong Ah Lee, 윤정의 알폰소,  
박길순 수산나, 이순옥 테레사,  
김난수 로사, 이형숙 한나,  
주종남 바오로, 이경희 에우세비아, 이동식 토마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할 일 없는 사목자

오늘 복음에는 예수님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이 나옵니다. 복음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눈코 뜰 새 없으셨을 텐데, 바리사이와 율법 학자들의 온갖 모략은 물론, 친척들의 몰이해까지 겹쳐서, 예수님께서서는 이 일들에 어떻게 모두 대처하실 수 있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기우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두에게, 모든 것에서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해 하느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저는 예전에 원목 사제로 지냈었습니다. 원목 사제에게 필요한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할 일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원목자가 병실 방문을 다닐 때, 누구라도 “신부님!”하고 부르면, 멈추어서 충분히 들어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바쁜 일이 좀 있어서요...”하고 청을 거절하는 그 순간이, 환자와 나눌 마지막 소중한 대화를 저버리는 것이 될 수 있고, 그분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외면하는 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목자는 가장 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는 원목자만이 아닌, 바빠 보이는 오늘날의 성직자, 수도자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제에게 도움을 청하는 많은 교우들의 첫마디가 “신부님 바쁘실텐데...”입니다. 그러면 저는 “저 안 바쁘데요.”하고 말합니다. 사실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쉴 새도, 음식을 드실 여유조차도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결코 어느 한 가지도 소홀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하나도 안 하신 일이 없습니다. 가로막는 돌을 치우시고 벽을 허무셨습니다. 연민어린 눈으로 바라보셨고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사랑의 모범을 보

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도 안 바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느님의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서는 큰일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시지만, 작은 일을 통해서도 그에 못지않은 섭리를 이끌어 내십니다. 무수한 잘한 일들도 보시지만,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사소한 하나도 그 못지않게 소중히 여기십니다.

호세마리아 에스κρι바 성인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감실로 다가갈 때 그분께서는 20세기 동안이나 그대를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길》537)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기까지 주님께서서는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마태 3,35)라고 하십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잘 실행하는 주님의 착실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속되고 하찮은 일 앞에서 ‘할 일 없는’ 사람이 되는 용감한 선택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계철 라파엘 신부 | 주교좌 기도 사제

<p><b>김수정 REALTOR®</b> Soo Jung (Julia) Kim KELLERWILLIAMS   DRE 02049482 925.416.9249 kw julia.kim@kw.com</p>	<p><b>대 건 한 의 원</b> 한의학 박사 이준 침, 안약, 체중조절, 통증조절, 체질관별, 건강상담 6990 Village Pkwy #212 Dublin, CA 925-765-9755</p>	<p><b>STEVE G KIM DDS</b> Family &amp; Cosmetic Dentistry Dr. 김진만 치과병원 111 Deerwood Rd. Suite350 San Ramon, CA 94583 925-718-8970 / sgkdental@gmail.com www.sgkdental.com</p>	<p> <b>STAR태권도</b> STAR TAEKWONDO 하성곤 요제프 (925)404-9765 1490 N. Vasco RD, Livermore StarTaeKwonDo.com MasterHa@StarTaeKwonDo.com</p>
<p> <b>N² ART &amp; DESIGN</b> Private and Group Art Lesson 650-766-0972 n2artndesign.com n2artndesign@gmail.com</p>	<p><b>부동산 거래 필수 에이전트!</b> <b>탐탁 부동산</b> TOM TAHK / 토마스 408-499-6543 / realtor.tahk@gmail.com *탐탁하다: [형용사] 모양이나 태도, 또는 어떤 일 따위가 마음에 들어 만족하다.</p>		<p><b>미술교실</b> 전통민화 · 수채화 · 드로잉 · 아크릴화 초보자들도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지도해 드립니다 Cell (925)818-0770 fremontart@yahoo.com</p>



우리는 가끔 자신의 삶에 대해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을까? 그리고 내 주위에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그런데 잠시 멈춰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삶에 정말 고통과 힘겨움만 가득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고통과 힘겨움에만 모든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내 삶을 더 고통스럽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사실 내가 불평하는 삶이 누군가에게는 부러운 삶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오늘일 수도 있지요. 또한 살면서 원수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를 더 성장하게 만드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로마 8,28)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 기도 안에서 가져야 할 첫 번째 태도는 바로 이러한 하느님의 계획과 사랑에 대한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있음에 대해 먼저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은 새 영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론 모음집인 De Sacramentis라는 책에서 '하느님을 찬미함'이 모든 기도의 첫 자리에 와야 함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하나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나 자신과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사실은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시며, 지금의 내 생명과 삶이 그분의 허락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나타내는 찬미와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 모든 하느님 찬미와 감사의 정점인 미사 때 우리는 주님의 자비를 구한 후, 대영광송을 부르며 소리 높여 주님을 찬미합니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렇게 우리는 하느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주님께 의탁하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평화가 깃들길 마음을 모아 노래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영광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천사들의 노래를 바탕으로(요한 2,13-14 참조) 성령 안에 모인 교회가 하느님 아버지와 어린양을 찬양하고 간청하는 찬미가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한 이 대영광송은 신자들에게 빛과 희망의 기쁨을 건네줍니다. 이러한 찬미가를 통해 우리는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힘겨움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그 삶의 모퉁이마다 기쁨과 감사를 마련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사랑을 선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오직 주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p>CPA 조미정 (카타리나) <b>조미정 공인회계사무소</b> 6602 Owens Dr. #200 Pleasanton, CA 94588 Tel) 925-803-0200 jenny@jchocpa.com</p>	<p>새 차 13개 자동차 매장에서 도와드립니다 <b>HANLEES AUTO GROUP</b>  HILLTOP FREMONT FAIRFIELD NAPA DAVIS <b>SUE CHO</b> CELL: 530-220-2848</p>	<p><b>PARK CHIROPRACTIC</b> Dr. Joon Park Office (925) 355-1450 Cell (925) 997-1257 7027 Dublin Blvd. Suite #101 Dublin, CA 94568</p>
<p><b>HARMONY ACUPUNCTURE</b> 석은경 아가다(Agatha Suk L.Ac) Tel 510-889-8062 917 C St. Hayward, CA 94541 www.harmony-acu.com harmonyacupuncture1@gmail.com</p>	<p> Dublin Pediatric Dentistry &amp; Orthodontics 소아치과   교정 전문의 <b>Elizabeth Jihyun Kim, DDS, MS</b> 11920 Dublin Green Drive, Dublin, CA 94568 (925) 833-1900   smiles@dublinpdo.com www.dublinpdo.com</p>	<p><b>COMPASS REALTOR® 부동산</b>  <b>AIDEN KIM 에이튼 킴</b> (니콜라오) 925.389.2463 Aiden.kim@compass.com DRE # 01983236  TIM MCGUIRE TEAM</p>
<p><b>West Dublin PETSMART</b> <b>한국어상담가능 수의사 임경택</b>  6960 Amador Plaza Rd, Dublin 925-644-3114 DublinCA@petsmartvetservice.com</p>	<p><b>James Golf Class</b> 어려운 골프 쉽게 쉽게! Instructor: 나정태(제임스) 925-434-2659 jrha.golf@gmail.com USGTF License #: 11512 </p>	<p><b>광고를 모집합니다.</b> 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925-871-9746</p>



6월 주요 전례 일정

- 6월 16일(주일): 수녀님 송별 미사
- 6월 18일(화), 20일(목), 21일(금): 평일 미사 없음 (본당 신부 휴가)

사랑의 모후 꾸리아 6월 월례 모임

- 일시·장소: 6월 9일(주일), 오전 10시 45분 - 12시, Room A

권영랑 마리크리스티나 수녀님 송별 미사

- 일시·장소: 6월 16일(주일), 오전 9시 30분·대성당
- 마리크리스티나 수녀님께서 5년간의 북가주 가톨릭성서 모임 소임을 마치고 새로운 소임을 받기 위해 한국으로 귀국하시게 되었습니다. 마리쥬세핀 수녀님은 남가주로 자리를 옮겨 가톨릭성서모임 소임과 신학대학원 공부를 병행하시게 되었습니다.
- 공동체에 보내주신 수녀님들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수녀님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4 Christus North Retreat

- 일시: 6월 28일(금) - 30일(주일)
- 장소: Vallombrosa Retreat Center  
250 Oak Grove Ave, Menlo Park, CA 94025
- 전예윤 마리쥬세핀 수녀님과 전지윤 신부님이 교회에서 멀어져 가는 청년들을 위해 준비한 피정입니다. 우리 본당의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 신청: <https://www.christusretreat.org/>

Camp Creation 2024: Korean-American Catholic High School Summer Camp Registration is now open!!

- 대상: Incoming 9<sup>th</sup> - Graduating 12th Grade Students
- 날짜: July 26-28, 2024
- 장소: YMCA Camp Campbell
- 신청: <https://tinyurl.com/2024HSSummerCamp>
- 신청비: \$250 per student
- 신청 마감: July 7, 2024
- 문의: 성호승 어거스틴(925-394-4283)

축구 기어 드라이브 행사

- 저소득층과 난민 어린이들을 위해 이스트 베이 난민 캠프(CRECE)에서 진행중인 무료 축구 프로그램(Better Together Soccer)에 사용될 축구용품에 도네이션 받습니다.
- 품목: 새것이나 새것같이 깨끗하게 이용한 각종 축구용품
- 기간: 6월9일(주일)까지
- 장소: 성당 로비(비치된 바구니 활용)

주일학교 교리교사 및 봉사자 모집

- 2024-2025학년도 주일학교를 위해 봉사할 교리교사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자격: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모든 성인 신자 (한국어·영어 무관)
-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자녀들 신앙 교육에 힘이 됩니다. 관심과 지원, 기도 부탁드립니다.
- 문의: 성호승 어거스틴(925-394-4283)

6월 반모임 일정

마태 4	6/7(금) 7PM	력키	925 413 5233
루카 2	6/9(일)12:15PM	Room A	925 997 3127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수표 작성 시 Payable to Tri-Valley Korean Catholic Church)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English Mass				
\$1413	\$307	\$6330	\$140	\$200	\$8390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 고문순(6), 권오원(1-6), 김수정(1-5), 김홍락(6), 남석훈(6), 두신(5,6), 방규성(1-6), 이희열(6,7), 조상호(1-6), 조현대(6), 함종식(6), 홍사현(5), 황종영(1-6), 황준영(6)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 고문순(6), 김홍락(6), 남석훈(6), 두신(5,6), 이희열(6,7), 조현대(6), 함종식(6), 홍사현(5)

Bishop's Appeal

- 고문순(6), 김홍락(6), 남석훈(6), 두신(5,6), 이희열(6,7), 조현대(6), 함종식(6), 홍사현(5)

간식 봉헌 김규영 요아킴·김현자 실비아 가정

6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조국을 떠나는 이주민들

For Those Fleeing Their Own Countries

전쟁이나 기아를 피하여 위험과 폭력이 난무하는 여정에 내몰린 이주민들이 도착 국가에서 환대받고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기도합니다.

Let us pray that migrants fleeing from war or hunger, forced to undertake journeys fraught with danger and violence, may find welcome and new living opportunities in their host countries.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고해성사 후 나오실 때  
고해소 문을 살짝 열어  
두시기 바랍니다.